



**전북아동보호기관-전주지검, 아동보호 간담회**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17일 '온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자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문지선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 아동학대 사건 담당 검사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외사항을 공유하고 온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자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검찰청과의 협력해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검찰이 함께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지선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선진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호남 대표 두 개발공사' 협약**

전북·전남개발공사, 감사 전문성·청렴도 제고 위해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감사·청렴업무 교류와 증진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도단위 개발공사 간 감사·청렴업무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개발공사(사장 서경석)는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 본사에서 감사·청렴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전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상호 교차감사 및 감사인력 지원, 감사기법·청렴우수사례 등 관련 정보 교류, 감사업무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상호교류를 강화하게 된다.

전북개발공사는 협약 당사자인 전남개발공사가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 감사 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한 바 있어, 이번 MOU로 두 기관의 감사전문성과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청렴업무 협약은 부동산 관련 전·남북 개발공사 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개선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서로가 쌓아 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청렴도 및 감사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 감사 기구에 대해 기관 규모·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실시심사와 서면 심사로 운영실태와 감사 활동 등을 평가한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 국민은행과 함께 의료진 간식 지원**

예수병원은 겨울철 COVID-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진 사기 진작과 주의를 위해 푸드트럭 간식 지원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파트너스데이 행사는 '전주금융센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 재확산에 주의를 가진 행사인 만큼 철저한 위생교육과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절차를 준수한 푸드트럭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예수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의료진 500여 명에게 간식과 커피 등을 제공했다.

예수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19 발생 지속으로 이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격려와 오늘 같은 이벤트는 우리 예수병원 임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예수병원은 지난 9일 전국 최초 장애인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북도민들 누구나 동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정책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 노인대학 졸업식... 졸업생 110명 탄생**

전주지역 노인 110명이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됐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 부설 노인대학(학장 조희정)은 지회 강당에서 졸업생 110명(남자 41명, 여자 69명)과 지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노인대학 졸업식을 지난 17일 가졌다.

박민봉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은 개식 선언과 흥성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수석부회장의 노인경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증서,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고등급 졸업생이 전주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선영호 졸업생이 전주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

또 박복군 졸업생의 5명이 지회장상을, 김우연 졸업생이 명예회장상을, 이수남의 6명이 학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졸업한 110명의 졸업생 중 32명이 개근상을 받았으며, 21명이 정근상을 수상했다.

조희정 노인대학장은 "배움에는 때가 없다며 100세 시대 언제나 평생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인대학에서 배운 것



들을 활용해 가정과 이웃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노후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코로나가 110명의 열정적인 땀과 함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학도들의 배움의 열정과 희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진행**

남원시는 17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내 동아리 4개 팀의 식전공연, 기념식, 퍼포먼스를 통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남원시장, 남원시의회의장, 남원경찰서장, 국제이비서 전북지역본부장, 보호관찰소장 등과 관련기관 종사자들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했다.

기념식은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및 "아동학대! 남원 시민이 묻고 남원시 이벤트가 답하다!" 동영상 시청과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닙니다. 아동에 대한 관심입니다"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경식 시장은 "아동학대는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최선의 예방이며,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어르신 대상 구강건강 체험교실 운영**

무주군이 지역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무주군보건소원내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지역내 경로당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 대상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통해 어르신 무료 의치 사업을 비롯해 입냄새 원인 및 관리법, 구강관리법, 칫솔관리법, 틀니 닦는 요령에 대한 직접체험과 틀니에 익숙해지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한다.

구강보건 치과의사와 사업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하며, 치아가 시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불소도포와 노인 무료 스케일링 사업 안내와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구강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구강질환 유병률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구강질환 예방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무주군보건소원내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안미경 팀장은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구강건강 관리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되면서 구강건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제20기 노인대학 졸업식 가제**

무주군 제20기 노인대학(학장 박민술) 졸업식이 지난 17일 무주군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은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박민술 노인대학장, 윤정훈 도의원,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회장 이광부)가 주관한 이날 졸업식은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김민중 노인경령 낭독, 졸업장 수여, 시상, 격려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노인대학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장과 특별상을 수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영광스럽게 노인대학을 졸업하신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노인대학 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고 말했다.

무주군 제20기 무주군 노인대학 졸업생은 총 100명으로 수강생들은 지난 5월부터 △교양 및 국내·외 정세 △생



활체조 △노래교실 수업과정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다.

박민술 노인대학 학장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써 각자가 지니는 잠재 능력을 재개발시키고 여생을 보람있게 즐기며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라며 "노인대학 과정을 이수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밝고 활력을 찾는 동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제이와이프름, 어린이 등대 그리기 공모전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 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제이와이프름이 어린이 등대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 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에 위치한 산속동계 미술관을 거점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18일 접수가 마감된다.

공모전을 기획한 (유)제이와이프름의 원태연 대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과 기후에 대해 소중한 관심을 깨닫고, 등대의 밝은 빛으로 아이들의 희망을 비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어린이 등대 그리기 공모전을 통해 유료 시설인 산속동계 미술관이 전시 기간 중 해당 전시를 관람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군산시 청년들, 협약 체결**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군산시 청년플(센터장 김연중)은 군산지역 청년·(예비)창업자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청년·(예비)창업자의 재무진단을 통한 맞춤형 재무 설계 및 재무조정 상담 연계 지원, 군산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관로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 교육·컨설팅·자금·상담 지원사업의 협력 추진, 기타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금융복지 및 컨설팅 사업 지원으로 군산 지역 청년·(예비)창업자의 경제적 성장과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유용우 이사장은 "군산지역 청년들이 협약을 통해 생활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인의 역량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남원시, 고독사 예방 위한 민·관 대응체계 구축**

남원시와 남원사회복지관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3시 '사회적 고립과 죽음의 민낯'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현재 남원사회복지관은 지난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에는 명예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김완 강사는 죽음의 현장에서 느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며, 사회적 단절과 고립현상은 고독사의 전조 증상이니 주위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농협, 이동상담실 운영·자산관리 교육**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5일, 관내 청년농업인 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남원농협 이동상담실 및 자산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관에서 생활법률분야를 농업 100세대대역구에서 자산관리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 농업인이 영농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해로사항을 법률·소비자·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가 교육하고 상담하는 농업인 실익 지원사업이다.

남원농협은 이동상담실뿐만 아니라 농업인 법률상담봉사단, NF농촌현장봉사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임직원 단체 헌혈, 영농철 입소독기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농업인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